

민주 '국힘, 조폭 돈뭉치' 맹공

"면책특권 갑옷 입고 허위사실 칼춤 영동한 사진 공개 학예회 수준" 허무맹랑 주장 김용판 시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출석한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에서 '조폭 돈뭉치' 사진으로 진 위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대해 19일 영공에 나섰다. 전날 김 의원이 국제마피아 파 행동대원이던 박철민 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으니,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자 이를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붓은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말천을 제대로 봤다"며 "하나 마나 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랑 국감이었다"고 맹공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밝혀진 건 아무 것도 없고, 오히려 생뚱맞게 조폭 연루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친 김 의원은 신성한 국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당 화전대유·토건비리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TF 회의에서 "면책특권이라는 갑옷을 입고 언 어썩력, 허위 사실 유포라는 칼춤을 추는 자리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당 경선후보였던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렬히 전사해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들고 온 것은 영화 '아수라', 가짜 돈뭉치 사진뿐이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 후보 캠프 출신들도 전면에 나섰다. 박찬대 의원은 MBC·C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한 방은 없고 헛방만 있었다"며 "전혀 영동하고 황당한 사진을 기초로 한 학예회 수준의 국감이었다"고 비꼬았다. 또 "김 의원이 예전에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소홀한 초동수사로 나중에 결과가 뒤집힌 바 있다"며 "용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야유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삼류 지라시에도 안 나올 저질 안동의 경연장이었다"면서 "그동안

얼마나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었는지 낱낱이 자백하는 자리였다"고 쏘아붙였다.

이탄희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죄명"은 팩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긴 죄, 대한민국 의회의 수준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린 죄, 정치 혐오감을 각인시킨 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권은 전날 이 후보가 참석한 경기도 국감에 대해 "이 후보의 완승"이라는 자평과 함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정정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으로서 (이 후보를) 왜 불렀느냐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돋보이는 압승을 거

뒀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국감을 통해 의혹이 잘 해명되면 이 후보에 대한 신임과 신뢰가 회복되고 지지율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몇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폰돈 받은 사람을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감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하는지 다들 분노해 마지않았다"며 "이런 분들은 알아서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 돈다발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폭연루설 가짜 돈다발...자책골에 속끓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상대로 진행된 첫번째 국정감사에서 보폭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국민의힘이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를 파고들기는커녕, 오히려 자책골을 넣으면서 이 후보에게 '출구'만 마련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용판 의원이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PPT에서 이 후보와의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현금다발 사진이 가짜라는 정황이 드러난 게 가장 큰 실점으로 꼽힌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철민씨가 제보했다는 사진으로 당초 '결정적 반향'으로 준비된 자료였다. 그러나 박씨가 렌터카 업체 운영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이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되레 수세에 몰렸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날 국감에서 "경찰 관리대상이 아니고 행동대장도 아니다"라며 박씨가 국제마피아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김 의원이 서울경찰청장 출신이니 기본적인 팩트 체크는 했다고 생각했다"며 "어제 국감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사진은 과거에 찍었다가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다. 촬영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치밀한 전략 없이 정작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단

같이했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TBS 라디오에서 "그렇게 못 할 수가 없다. 히딩크의 심정이 이해되더라"며 "이 후보의 동공이 흔들리는 질문은 7분 동안 최소 10개는 해야 한다. 따지고 흔계하는 것은 특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의원들이 각자 자신이 질의하고 싶은 것만 질의하고 행안위 차원의 팀워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략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질의 시간이 7분으로 제한된 의원들과 달리 이 후보에게는 딱히 답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데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한 행안위원은 "시간에 쫓겨 7분 안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작 이 후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국감 진행도 여당에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온실가스감축 태양광 설치 1만9760ha 농지 필요

신정훈 국회의원

'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따라 최대 1만9760ha 규모의 농지에 추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6500ha는 농사겸용이 불가능한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체 공공유 간척농지 9681ha의 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에 해당해 향후 농촌지역의 갈등이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회선)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NDC 상향 및 신재생에너지3030 달성을 위해서 기존목표('30년 34GW) 대비 2배인 '30년 태양광 보급 70GW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기준 누적설치 규모는 14.6GW 수준이다. 동 자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상향, 이



격저리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30년까지 총 50GW의 투자유도는 가능하나, 추가 20GW에 대한 입지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입지제공 및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신정훈 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염해농지 태양광의 경우 최소 5000ha에서 최대 6500ha의 농지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최소 1만200ha에서 최대 1만3260ha 규모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는 1만5200ha-1만9760ha의 농지가 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 어촌체험마을 평균 소득 3000만원 불과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9일 진행된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에서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중인 어촌체험마을이 활력을 잃고 소득 감소에 직면했음에도 공단은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공단에서 어촌체험마을에 투입한 예산은 약 7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전국에 99개였던 어촌체험마을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 115개 마을에 육박하고 있지만 정작 마을에서 벌어들이는 직접 소득은 2018년 마을당 평균소득 2억7000여만원에서 2020년 1억4000여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체험객과 소득 등의 운영실적 편



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기준 6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는 마을당 평균 체험객 2만7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2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의 경우 평균 체험객이 361명에 불과했다.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평균 소득은 약 3000여만원에 불과했으며, 9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마을당 평균 소득이 3억여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승남 의원은 "어촌어항공단은 주민들의 필요와 역량을 고려해 지역별·마을별 컨설팅 및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에 외면 받아

윤재갑 국회의원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 인터넷 쇼핑몰의 농산물 품질관리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을 농협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앞세워 인터넷 쇼핑몰인 농협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선하고 믿을만한'만족스럽게 라는 농협의 홍보와는 다르게 썩거나, 상한 제품이 배송되어 접수된 '불만족 민원'은 최근 5년간 9210건에 달한다.

이처럼 농협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농축산물 위주의 판매가 아닌 사무용품과 생활품의 판매가 절반



가량(42.9%)에 달한다. 또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구리 사업을 통해 매출의 반씩 상승이 이어졌으나, 주력 상품인 농축산물의 매출 저하에 따라, 농협몰 전체 매출도 덩달아 하락했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랜선 장보기의 일상화로 인터넷 쇼핑이 43%나 증가했음에도 농협몰은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한 배송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심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가매매 (상무지구)

- 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
- 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
-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담(호) 2분,
장성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